

01 교회소식

메리 크리스마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목회자들이 보내온 감사의 메시지.

02 생명의 말씀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

03 기획특집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원수 마귀 사단이 두려워 떨며 물러간다.

04 간증

“손수건에 담긴 권능을 체험했어요”

에이즈로 인한 사랑의 눈에서 해방된 케냐 애드윈 성도와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딸의 피부병을 치료받은 지혜순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868호 2018년 12월 16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목회자들이 보내온 성탄 축하메시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목회하는 사역자들이 만민의 성도들과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고자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베들레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 사역의 위기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2007년 12월 25일, 이재록 박사님과 함께했던 성탄절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임에도 주민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 이므로 교회를 운영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역을 계속하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재록 박사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성탄예배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에는 말씀과 치료를 사모하는 200여 명의 성도가 모였고, 많은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선교팀의 방문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주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지요. 박사님께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어려움을 아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것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지요. 이재록 박사님을 알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영육 간에 지원과 축복을 받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민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루살렘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스라엘 목회자들은 이재록 박사님을 알게 된 후부터 그분의 사랑과 기도, 지원에 힘입어 하나가 되니 사역이 충만해졌습니다. 저 또한 처음 이재록 박사님에 대해 들은 뒤 아침 기도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 계신 성령님은 ‘그분을 꼭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후 선교팀과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하셨지요. 박사님을 뵙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08년 11월, 목회자들이 연합하여 ‘크리스탈포럼’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였고 이듬해 9월 초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재록 박사님을 감사로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주최하여 매우 성

공적으로 치렀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는 공공장소에서 매년 찬양 페스티벌, 기념성회 등 행사를 진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입니다. 현재 크리스탈포럼 목회자들은 이재록 박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CMTN이라는 방송을 통해서도 전하고 있지요. 정녕 이 모든 일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이재록 박사님, 그리고 만민의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이파 “박사님의 권능의 기도로 아내와 딸이 강건해졌습니다”

저희는 이재록 박사님의 신실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3년간 이스라엘 선교 사역은 저희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깨웠고,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며 말씀을 전해 주셨고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지요. 이를 통해 저희 목회자들은 하나 되기 시작했고 복음 전파에 힘이 생겼습니다. 더욱이 저는 암으로 고통받는 아내로 인해 너무나 마음 아픈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박사님께서 선교 차 오실 때마다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에 아내는 빠르게 회복되어 건강해졌

고 저는 삶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지요. 또 막내딸은 어릴 때부터 시력이 매우 나빠 돋보기처럼 얇이 두꺼운 안경을 써야 했는데 박사님께 기도받은 뒤 시력이 좋아져 지금까지도 안경을 쓰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재록 박사님, 10년이 넘도록 한결같은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박사님과 만민의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 주셨듯이 저희도 이곳에서 박사님과 만민중앙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은 빛이시라’ 시리즈 9

빛들로 나타내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 빌립보서 2:14~15 -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고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밝은 태양처럼 진리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빛들로 나타낼 뿐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으며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화평함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 빛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어떤 마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1) 흠이 없고 순전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먼저, ‘흠이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나 신체, 성격에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흑여 흠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선시켜 나가면 됩니다.

성경 상에서 아무 흠이 없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니엘을 들 수 있는데, 그가 흠 없이 행한 것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은 본래 유다 지파에 속한 왕족 출신으로 유다가 바벨론의 침입을 받았을 때 많은 유대인과 함께 포로로 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 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뽑도록 합니다(단 1:4). 이렇게 다니엘과 함께 뽑힌 소년들은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먹으며 왕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지정한 음식 중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증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대신 채소와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흠도 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더하셔서 모든 사람 위에 높여 주셨습니다. 장성하여 국사를 돌아볼 때에도 명철과 총명함으로 슬기롭게 행했으며, 마음이 민첩하여 급기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무리가 고소할 틈을 찾고자 하였음에도 아무런 틈이나 허물을 발견치 못했으니 그가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단 6:4).

다음으로, 순전한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데 ‘순전’의 사전적 의미는 ‘순수하고 완전함’입니다. 영적으로는 ‘온유함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뜻하며, 흠이 없으면서 옳은 것에 대해 완전히 행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행실, 성품과 삶의 방식 등을 보실 때에 악이 없는 깨끗한 중심으로 그 행실이 온전하다면 이를 순전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순전한 사람은 반드시 그 행함에 덕이 있습니다. 인격이 참으로 맑고 깨끗하며 모든 삶이 품위 있고 정결합니다.

설령 해로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에 수용하여 모든 면에서 스스로 삼가 지켜 행하지요. 또한 입에 좋지 않은 말 담기를 원치 않고 악한 행동은 물론 악한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하며 오직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녀가 열 명이었고 소유도 많아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선행을 베풀었고(욥 29:12, 31:18),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음을 주었지요.

하나님께서 욥의 순전한 행함은 인정하실 만했지만 그 속 중심까지 완전케 하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제외한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순식간에 잃게 되지만 욥은 순전을 굳게 지키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난 것입니다.

이때에도 욥은 하나님께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욥의 마음 깊이 숨겨 있던 악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같이 연단하셔서 온전케 하십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우리가 말과 행실에 순전함을 지킨다면 원망과 시비할 일은 당연히 없어질 것이요, 빛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2) 어그러지지 않고 거스르지 않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먼저 '어그러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교만하고 다투며, 자랑하고 들레며 헐기 내는 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기본적인 틀에서 이탈된 것을 어그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이 자신의 육체를 색욕거리로 만들고, 참으로 저속하고 듣기 민망한 말을 하며 좋지 않은 감정이 쉽게 표출되며 심지어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방향도 점차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하며 온갖 세상의 향락을 좇아가지요.

의복은 색채나 디자인이 참으로 현란하고 단정치 못한 옷들이 점점 많아지고, 화장도 입술에 어둡고 칙칙한 색깔을 바르는 것이 마치 세련된 것처럼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어그러진 것들의 단면일 뿐, 이 외에도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기본적인 틀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를

다음으로, '거스르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떠나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순종치 못한다거나 자녀가 그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행해야 할 도리들을 저버리는 것을 말하지요.

창세기 6장 5~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될 정도로 이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세상의 빛이 될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2.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지금까지 흠이 없고 순전한 마음, 어그러지지 않고 거스르지 않는 마음이라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므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취 줌으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성령을 받게 하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데 막상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지금까지 한 일이 헛되고 물거품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밝혀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기뻐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밝혀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여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기쁨으로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밝혀 모든 것을 용납하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일까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막상 한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누군가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들을 간증하고 믿음을 심어 준다면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랑의 간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역사하시게 되지요. 그리하여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받으면 믿음이 연약했던 가족도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일가 친척까지 믿음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상급으로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3. 관제로 드러질지라도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17~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러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관제'란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로서 부어진 포도주는 형태도 없이 사라지지만 좋은 향이 발해짐으로 하나님의 흠향하실 만한 제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는 주 안에서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차원을 넘어, 최고의 헌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참으로 넘치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여러 번 죽을 뻔하는 등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개의치 않고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또한 지식이나 가문 등 여러 면에서 뛰어난 환경과 조건들을 갖추었지만, 자신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 불과하며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수고에 대해 후회하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길이 엄청난 가시밭길이었요, 종국에는 참수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 전체가 오직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달음질하며 달려온 길이었습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넘치도록 수고한 사도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 천국에 대해서도 밝히 보여 주셨습니다(고후 12:1).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8)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ip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의 차이는 매우 크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시기 전의 호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이름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까닭이다.

◆

'예수'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마 1:21)라는 뜻으로, 미래형이다. '그리스도'란 '기름부음을 받은 자'(행 4:27)라는 뜻의 헬라어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자이며 중보자인 구세주의 직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히브리어의 '메시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구세주'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구세주의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란 뜻으로 완료형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만세 전에 죄인 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의 사명을 받으셨고, 때가 되

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구세주가 되셨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맞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영적인 의미, 곧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구세주이심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원수 마귀 사단은 두려워 떨며 물러간다.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따르는 믿음의 역사는,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와는 전혀 다르다.



“에이즈로 죽어가던 제가 손수건 기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에드윈 오티에노 성도 (31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술, 담배, 여자 등 세상 것들에 취해 살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고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벗겨지더니 발진도 생겼고, 식욕도 없어지며, 거동을 하는 것조차 힘이 들었지요.

2018년 6월, 가족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진을 받았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인 에이즈 3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산송장 같은 제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다시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강권하였지요. 다시 검진을 받은 결과 결핵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체중도 많이 줄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대화할 때도 숨쉬기가 어려웠지요.

가족은 아픈 저를 보며 많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였지요. 여동생 데보라는 제게 교회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으며 치료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매일같이 저를 돌봐주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제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전도하였지요. 저는 가족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마침내 힘든 몸을 이끌고 나이로비만민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교회에 와 보니 참된 진리의 가르침과 성도들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요. 또한 데보라의 권유로 당회장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를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의 치료를 위해 아버지께서도 기도해 주셨고, 데보라는 일주일 하루씩 금식하며 저를 위해 대신 회개해 주었습니다.

8월 초, 데보라는 만민하게수련회에 함께 참석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걷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동생의 부축을 받아 교회에 가서 GCN생방송으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련회에 참석했지요.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감사 이수진 목사님이 전체를 위해 기도해 주신 뒤, 수많은 성도가 치료받아 간증하는 모습에 너무 놀랍고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주어졌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전에는 몸이 천근만근 매우 무거웠는데, 기도받은 후에는 몸이 가볍고 어떤 힘듦의 증상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 매일 몸이 호전돼 혼자서도 잘 걷고 요리와 빨래 등 집안일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이제는 식욕도 좋아져 정상적인 체중이 되었고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셔서 영육 간에 새 생명을 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손수건 기도를 받고 딸의 수포성 한진을 치료받았습니다!”

지혜순 집사 (33세, 중국 2교구)

2018년 여름을 앞두고 날씨가 점점 더워질 무렵, 딸 가영(4세)이의 피부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엉덩이 쪽에서부터 뒷목까지 발진이 심하게 일어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울기만 하는 아이를 보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상이 심해지니 저는 더 이상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좋다고 하는 약은 다 사서 아이의 환부에 발라 주었지만 호전되기는커녕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영아,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갈까?” 하고 물어보니 아이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도받을래?” 하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지요. 어린아이지만 그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성도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치료받아 간증하는 것을 보고 들어 믿음이 생겼던지 오히려 저보다 믿음을 내보이는 모습이 그저 대견스럽기만 했습니다.

마침 만민기도원에서 진행되는 은사집회가 있다가에 치료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참석하였지요. 집회 전, 기도원 총무 주현철 목사님은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가영이에게 기도해 주신 뒤, 아이의 질병은 부모의 잘못으로 온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아이에게 쉽게 짜증내고, 헐기를 냈던 것을 회개했지요.

집회가 마쳐진 뒤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채운석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가영이가 ‘수포성 한진’인 것을 알게 되었고, 박사님도 가영이에게 손수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자 그날 밤부터 아이의 증상은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수포 위에 금세 딱지가 생기더니 아이가 울지 않고 잠을 너무나 잘 잤고, 며칠 뒤에는 딱지까지 완전히 떨어져 깨끗이 치료가 되었지요. 할렐루야!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에 가자고 해도 안 가겠다고 믿음을 고백을 하는 아이를 보며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 권능으로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되는 축복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깨우치게 된 것이지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회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선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8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충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명로 168 ☎051)805-39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 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 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로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자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8331-1136
- 안산자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99, 010-8927-2073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D ☎031)905-2419, 010-2352-8336